

한국어 비대격 동사의 사건구조

이준규 (서울대 언어학과 · junkyu90@snu.ac.kr)

이정민 (서울대 언어학과 · cleee@snu.ac.kr)

The Event Structure of Korean Unaccusative Verbs

Junkyu Lee, Chungmin Lee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자동사의 두 하위부류, 비대격 (unaccusative) 동사와 비능격 (unergative) 동사는 Perlmutter(1978)의 비대격 가설 (Unaccusative Hypothesis) 이후 여러 관점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왔다. 한국어에서는 사건구조적 측면에서 두 부류가 차이를 보이며, 이런 사실은 인간의 인지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사건구조를 과정(process)사건과 상태(state)로 가정할 때 비능격 동사는 과정사건이, 비대격 동사는 상태사건이 부각된다. 비대격 동사도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도착하다'처럼 과정사건이 언어표현에서 중시되지 않고 결과적인 상태 부분만 중요시되는 유형(unacc_type_1)과 '눅다'처럼 과정사건도 중시되는 사건 구조를 지닌 유형(unacc_type_2)이다. 결국 비대격 동사는 결과상태를 중시하는 사건구조를 중요시하지만 과정사건의 지각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편 비대격 동사는 사동사와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지닌다. 많은 논의에서 비대격/사동의 교체를 논리적 다의어로 보고 분석을 시도해 왔다. 따라서 사동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와 비대격 동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사동분석(causative analysis)은 한국어 기술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사동분석에서 도입하는 행동주의 사건유발부분이 반드시 비대격 동사의 표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을 한국어에 맞게 확장·수정한 이정민·강범모·남승호(1997)의 모형에 따라 두가지 유형의 비대격동사의 어휘의미구조를 표상한다.

1. 서론

자동사(intransitive)는 Perlmutter(1978)의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¹⁾ 이후 크게 비대격(unaccusative) 동사와 비능격(unergative)로 분류되어 왔다. 이 가설은 비대격 동사가 기저의 목적어 위치에, 비능격 동사가 기저의 주어 위치에 단일논항(monadic argument)을 갖는 서로 다른 통사

적 구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비대격 가설이 흥미로운 점은 자동사의 부류가 의미론적인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데 있다.²⁾ 즉 논항구조의 관점에서

2) Predicates determining initially unergative clauses.

This class includes describing willed or volitional act, a manner of speaking verb, sounds by animal, certain involuntary bodily process.

Predicates determining initially unaccusatives clauses

Predicates expressed by adjectives in Eng; Predicates describing sizes, shapes, weight, colors, smells, state of mind.; Predicates whose initial nuclear term is semantically a Patient ; inchoatives ; Predicate of existing & happening ; Duratives; Non-voluntary

1)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

일부 자동사를 가진 절은 초기 2를 갖고 있으며, 초기 1을 갖고 있지 않다.

(Certain intransitive clauses have an initial 2 but no initial 1.)

여기서 초기 1은 기저 주어에 해당하며 초기 2는 기저 목적어에 해당한다.

볼 때 비대격 (unaccusative)동사는 의미역 할이 대상(Theme)인 것을 취하며, 비능격 (unergative) 동사는 행동주(agent)인 논항을 취한다. 본고는 논항의 의미역할을 넘어 한국어 비대격 동사의 사건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비대격·비능격 동사의 사건구조

Vendler(1967)이후 전통적으로 분류되어 온 동사의 상(aspect) 유형 네 가지 중에서, 달성(achievement) 동사는 사건의 완결점(end-point)를 갖고 있는 완결(telic)사건으로서 '-만에'와 공기(co-occur)할 수 있지만, 사건의 완결점이 없는 즉 비완결(atelic)한 사건구조를 지니는 행위동사는 '-동안'과 공기한다는 것이 Dowty(1979) 등 여러 논의에서 지적되었다.

- (1)
a. 철수가 한시간동안/*한시간만에 달렸다.
b. 철수가 *한시간동안/한시간만에 도착했다.

(1)에서 비능격동사 '달리다'는 '-동안'과, 비대격동사 '도착하다'는 '-만에'와 공기한다. 이것은 인지되는 동사의 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달리다'의 경우도 완결점을 드러내주는 표현과 같이 쓰이면 '-만에'와 공기할 수 있다.

- (2) 철수가 학교까지 / 운동장 세 바퀴를 10분만에 달렸다.

(2)와 같은 현상은 완결점을 드러내 주는 표현을 도입함으로써 사건의 완결성(telicity)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정민 2000).

'달리다'와 '도착하다'는 고정된 시점을 나타내는 '-쯤'과 '-에'와 공기할 때 다른 의미를 지닌다.

- (3) a. 철수가 3시쯤??에 달렸다.
b. 철수가 3시쯤/에 도착했다.

(3a)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즉 '철수가 달리기 시작한 것이 3시다'라는 의미이지만, (3b)는 '하나의 사건이 완결되었다'라는, 즉 '철수가 도착완료한 것이 3시다'라는 의미이다. 다음 문장도 비대격/비능격 동사의 사건구조적 차이를 잘 보인다.

- (4) a. 3시쯤/에 달렸지?
b. 3시쯤/에 도착했지?

(4a)와 (4b)도 (3)의 경우처럼 다른 해석을 보인다. (4a)는 비완결(atelic)적 해석으로 '뛰는 행위를 시작했지?'의 의미이지 '뛰는 행위를 완료했지?'의 의미가 아니며, 반면 (4b)는 완결(telic)적 해석으로 '도착이 완료된 상황'에 대한 질문이다.

사건구조를 과정(process)과 결과상태(result state)의 개념으로 파악할 때, '달리다'는 과정사건만을 지니는 반면 '도착하다'는 '상태' 사건 구조가 부각된다. 즉 '달리다'의 경우는 사건을 과정중심으로, '도착하다'의 경우는 결과상태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결국 두 동사는 사건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Pustejovsky (1995)의 생성 어휘부이론을 도입하면 '달리다'의 사건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달리다
[사건구조 [사건1 =e1; 과정]]

비대격 동사는 결과사건 중심의 자동사이며 비능격 동사는 과정사건 중심의 자동사이다.

3. 비대격 동사(결과사건중심 자동사)

비대격 동사를 어휘개념유형 (Lexical Conceptual Paradigm)에 따라 나누어 보면 크게 '도착하다' 처럼 장소이동 (change of location)을 나타내는 경우(unacc_type_1)와 '녹다, 얼다' 처럼 상태변화 (change of

emmission of stimuli that impinge on the senses :Aspectual predicate

Perlmutter(1978: 162)

state)를 나타내는 경우(unacc_type_2)가 있다.

(6) a. 기차가 1 시간만에/*동안 도착했다.

b. 열음이 1 시간만에/??동안 녹았다.

'도착하다'와 '녹다'가 '-만에'와 공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결과 중심의 사건구조 즉 완결적(telic) 사건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두 동사가 그리는 사건은 다르다.

(7) 열음 녹았어?

아니, 아직 안/덜/반쯤 녹았어.

(8) 기차 도착했어?

아니, 아직 안/*덜/*반쯤 도착했어.

'녹다'나 '도착하다'는 결과 중심의 사건구조를 지니지만, 상태변화의 개념을 갖고 있는 '녹다'는 정도(degree)를 나타내는 부사와 공기할 수 있는 반면 '도착하다'는 그렇지 못하다. '도착하다'는 장소이동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완결(telic)의 해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도부사와 공기가 안 된다.

이정민 (2000예정)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상태변화동사 '굽다'의 경우 물질에 열이 가해져 균질적으로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금 굽다 말았어', '다 구웠어' 등이 자연스럽다. '녹다'의 경우도 고체 상태에서 액체상태로 상태변화를 표현한다. 열음과 같은 물질이 고체상태에서 액체상태로 일부분만 바뀌어도(물질 전체가 액체상태가 안 되더라도) 녹는 사건의 완결점이 보장된다. 따라서 '녹다'의 경우는 정도 부사와의 공기가 자연스럽다. 함의(entailment)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9)

열음이 녹고 있다 → 열음이 (일부) 녹았다.

unaccu_type_1과 unaccu_type_2가 과정사건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는 다음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10) a. 열음이 녹고 있다.

b.*?기차가 도착하고 있다.

'녹다'만이 과정사건과 공기할 수 있는 '-고 있다'와 결합이 가능하다.³⁾ 이밖에 '버스가(기다리자) 10분만에 도착했어'와 같은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착하다'는 과정부분(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분)을 중시하지 않고 사용된다.

(11) a. 열음이 계속 녹았다.

b. 기차가 계속 도착했다.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계속'에서도 두 동사 유형은 차이를 보인다. (11a)는 '열음이 녹는 과정(process)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반면 (11b)는 도착되는 행위의 반복을 나타낸다.⁴⁾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3) '도착하다'도 논항의 의미특성에 의해 과정사건과 결합되는 '-고 있다'와 사용될 수 있다.

a. 열차가 도착하고 있으니 한 걸음 물러서 주십시오.

b. 대통령께서 행사장에 도착하고 계십니다.

c. *소포가 도착하고 있다.

'도착하고 있-'과 결합할 수 있는 논항은 '인물'과 '교통수단'이다. '도착하다'가 요구하는 장소이동의 개념 유형으로서 한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점에 도달해야하는 사건을 기술한다. 이들 명사가 지니는 [+움직임]의 성질은 '도착하고 있-'과 결합이 가능하게 한다. 반면 명사 자체에 움직임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소포'와 같은 명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4) *열차 한 대가 계속 도착했다.

열차 여러 대가 계속 도착했다.

unacc_type_1 : 도착하다, 다다르다, 닿다,
도달하다, 미치다, 이르다
unacc_type_2 : 눅다, 얼다, 식다, 굳다,
굽다, 마르다, 썩다, 시들다

4. 비대격동사와 사동사

여러 언어에서 비대격 동사는 사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지적되었다(Levin & Rappaport 1995: 130). Parson(1990), Levin & Rappaport(1995), Pustejovsky(1995) 등은 비대격 동사를 사동분석(causative analysis)에 기초하여 기저형을 사동형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 형태로 비대격과 사동형의 교체를 보이는 현상을 논리적인 다의어로 보고 이들의 연관성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이다.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대격/사동의 교체가 통사적으로 실현된다.

Parson(1990)의 ‘fly’, Levin & Rappaport(1995)의 ‘break’, Pustejovsky(1995)의 이탈리아어 ‘affondare’ (sink)의 분석을 보자.

(13) <fly>: (∃e)[Agent(e, x) & Cul(e) & (∃e')[V ing(e') & Cul(e') & (e', y) & CAUSE(e, e')]]

(14) <break> : [[x DO-SOMETHING] CAUSE [y BECOME *BROKEN*]]

(15) <affondare>

EVENT STR	E1 = e1: process E2 = e2: state
Argument STR	ARG1 = x: phyobj ARG2 = y: phyobj
QualiaSTR	default-causative lcp Formal= sink_result(e2, y) Agentive= sink_act(e1, x, y)

세 논의는 각각의 동사들이 그리고 있는 상황을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대로 전체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에 의해 동사의 행위가 기동되고 동사의 행위가 완료된 결과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논의들

은 모두 타동사형을 기본형으로 보고 있으며 사역주(CAUSE)를 도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Parson(1990)은 ‘Agent(e, x)’를 통해, Levin & Rappaport(1995)는 ‘[x DO-SOMETHING]’를 통해, Pustejovsky(1995)는 ‘Agentive= sink_act (e1, x)’를 통해 각각 사동사건을 상정하여 타동용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세 경우 모두 변항 x가 사동주에 해당한다. 또한 Parson(1990)은 밑줄 친 ‘V ing(e') & Cul(e') & (e', y)’을 통해, Levin & Rappaport(1995)는 ‘[y BECOME *BROKEN*]’를 통해, Pustejovsky(1995)는 ‘Formal= sink_result(e2, y)’를 통해 사건의 결과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자동용법을 표상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의미적 연관성을 보이는 비대격/사동 교체현상을 논리적인 다의어로 보고 표상을 한 것이다.

문제점은 한국어 비대격 동사 즉 결과중심 자동사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사동사건을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가이다. ‘눅다’와 ‘눅이다’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 즉 ‘눅이는 과정’을 통해 ‘눅아 있는 결과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어 ‘눅다’는 영어나 이탈리아와 달리 한 동사형을 가지고 타동용법을 표현할 수 없다. 타동용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다른 어휘인 ‘눅이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a. He sank the boat.
b. The boat sank.

(17) a. 민수가 얼음을 눅였다.
b. 땡벌에 얼음이 눅았다.

만일 우리가 앞선 세 논의의 사동분석을 받아들인다면 타동사 ‘눅이다’가 일으킨 사건이 결과적으로 자동사 ‘눅다’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된다. a는 ‘민수’라는 행동주의 행위가 ‘얼음’을 눅아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건을 기술하여, 행동주인 ‘민수’에 의해 사건이 유발되는 것을 나타낸다. b에서는 인공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력인 ‘땡벌’에 의해 사건이 일어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b처럼 자연력에 의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17)

a. 그들은 전쟁이 끝난 뒤 무기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모두 녹여 버렸다.

b. 나는 난로와 위스키로 몸을 따스하게 녹여 주었다.

c. 커져가는 소금결정을 녹여 없애려면 비이커에 물을 더 부으면 된다.

필요한 부분은 ‘행동주’가 ‘녹이는 과정’ 유발한다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이 ‘녹이는 과정’이 유발시키는 사건이다. 밑줄 친 부분이 통사적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녹이다’의 사건구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다.

(18) ‘녹이다’

사건구조 사건1 = e1; 과정
 사건2 = e2; 상태
 중점 = e1

반면 ‘녹다’의 경우 다음과 같이 특히 자연적 변화를 나타낼 경우 ‘녹이다’의 ‘행동주가 사건을 유발시킨다’는 부분은 개념적 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지는 모르나 언어실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19)

a. 뜨거운 태양에 왁스가 녹아 날개가 떨어져 나가자 이카루스는 그만 떨어져 죽었다.

b. 계절로 치면 이제 경칩을 맞아 언 땅이 녹고 쌓인 눈이 녹아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봄이다.

c. 3, 4월에는 얼어붙었던 도로가 녹아 지반이 붕괴될 수 있다.

(19)에서는 a의 ‘태양’과 같은 원인 또는 작용이나 b의 ‘경칩을 맞아’와 c의 ‘3, 4월에는’과 같이 시간에 흐름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현상만이 필요할 뿐 반드시 행동주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사실은 ‘녹다’가 ‘녹

이다’와 같은 행동주의 개입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녹이다’만이 행동주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며 ‘녹다’는 녹이는 과정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작용만으로 논리적으로 필요로 할 뿐 직접적인 행동주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결국 한국어의 ‘녹다’는 영어나 이태리어와 달리 사동사건의 부분이 없고 ‘녹게 되는 부분’과 ‘녹은 상태’의 두 부분만을 지닌다. 이러한 사동분석을 배제함으로써 본고에서 분석의 틀로 받아들인 Pustejovsky(1995)의 특질구조에서 작인(AGENTIVE)설정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즉 그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어의 경우 사동사건을 어휘적으로 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동사건을 어휘표상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녹다’처럼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비대격 동사와 관련된 작인을 사건이 기동되는 과정으로서 가정한다.

5. 어휘의미구조

<녹다>

#사건구조 @사건1= e1:진이
#논항구조 @논항1 = x: 대상[사물&고체]
#격구조 @격틀1 = x_가
#특질구조 @상태변화_개념유형
 @형상 = 녹아_있다(e1, x)
 @작인 = 녹게되는_과정(e1, x)

<도착하다>

#사건구조 @당연사건1= e1: 과정
 @사건2= e2: 상태
 @중점= e2
#논항구조 @논항1 = x: 대상[사물]
 @논항2 = y :장소
#격구조 @격틀1 = x_가_y_에
#특질구조 @이동_개념유형
 @형상 = 에_있(e2, x)
 @작인 = 도착하는_과정(e1, x)

참고문헌

- [1] 이정민(2000예정), “상태변화 및 창조 동사의 의미구조(논항 및 상)” 김영화 외 의미의 표상과 실천, 한림과학원
- [2] 이준규(1998), “한국어 비대격 동사의 어휘 의미론적 특성”, 서울대학교
- [3] J. Lee & Ch. Lee(1999), “Two Types of Ambivalent Unaccusatives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2nd Int'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Tokyo, Japan.
- [4] D. Dowty(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Reidel
- [5] Levin, B(1993) & Rappaport, H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The MIT Press
- [6] Parsons, T(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The MIT Press.
- [7] Pustejovsky(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 The MIT Press
- [8] C. Lee, B. Kang & S. Nam(1997), “Argument Structure and the Role of Theme”, in *Proceedings of the ICCS' 97*,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Science.